

전주역세권 구도심 활성화 꾀한다

우범기 시장,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업예정지 8곳 현장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 점검

공약사업인 명품복합환승센터 등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명품복합환승센터(1단계)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 맛집창업교육관 등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업예정지 8곳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우 시장의 방문은 구도심 활성화의 상징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비 지원 도시재생사업이다.

우 시장은 전주역세권의 가장 주요한 거점시설이 될 명품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과 공영(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또 음식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

한 '맛집창업교육관', 문화 예술 공간인 '청년문화놀이터', 보행자와 차량을 생각한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지역특화 VR·AR 제작 거점센터인 '청년창업이음센터', 지역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생활 거점 공간인 '공감치유센터' 등 총 8개소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설명을 청취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구도심 부활과 인근 상가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주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이자 구도심 활성화의 상징성이 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 지역의 활기를 다시 되살리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행정·문화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명품복합환승센터(1단계)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 맛집창업교육관 등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업예정지 8곳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라감영·풍패지관! 역사의 향기를 담다'

전주시, 전라감사 교귀식·풍패지관 망궐레 등 진행

전주시는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귀식과 전라감사 순력행차, 망궐레 등 조선시대 전라감영과 풍패지관에서 행해지던 의례를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선시대 전통의례가 전라감영에서 재현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 (사)전통문화마을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라감영과 풍패지관(전주객사)에서 '전라감영·풍패지관! 역사의 향기를 담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전라감영·풍패지관! 역사의 향기를 담다' 프로그램은 △전라감사 교귀식(交歸式) △전라감사 순력행차 △풍패지관 망궐레 △여흥-전통예술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전라감영에서 열린 '전라감사 교귀식'은 신입감사 영접례와 교유서 안치 및 유서 선포, 도임감사와 이임감사 상견례, 교귀례, 교관례, 배별례, 도계장계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했다. '교귀식'은 오늘날 도지사 의 이·취임식이자 업무 인수인

계식으로, 조선시대 대부분의 교귀식은 신입감사와 이임감사가 도의 경계에서 만나 진행했다.

교귀식에 이어 전라감영에서 조선시대 감사가 도내의 각 고을을 순찰하는 '순력행차'도 재현했다.

순력행차는 전라감사가 향읍의 풍속과 민생의 고락을 살피고, 임금의 덕화를 널리 알리며, 민정을 살펴 아래의 실상이 위로 잘 전달되게 하고, 수령의 어질고 사리에 밝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살펴 백성들을 잘 다스려 민심을 안심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행차에서는 취태대의 연주와 직급별 다양한 복식, 깃발 등이 행렬을 이뤘다.

또 풍패지관에서는 '풍패지관 망궐레'가 거행됐다. '망궐레'는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근무하는 관리가 직접 왕을 배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시에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셔놓고 매일 초하루와 보름 등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린 행사이다. 왕과 왕비의 생일, 설, 단오, 한식, 추석, 동지 등 명절 날에 왕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비는 예를 올리기도 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출퇴근길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 특별단속 펼쳐

전북경찰청(청장 강형수)은 지난 9월 19일부터 6주간 도내 도심권 주요 교차로 내 차량 꼬리물기 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총 176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출퇴근길 조성" 계획의 한 방편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차로 내 꼬리물기 행위로 교통불편 및 민원이 잦은 전주, 군산, 익산의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 유발되는 신호위반 57건, 보행자 보호위반 2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117건 등 총 176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타인을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현장의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교통단속 및 홍보를 포함한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철수 교통과장은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는 나 하나의 행위로 모두가 함께 지체되는 행위를 인식하고,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에서는 한걸 여유로운 마음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사랑 나눔 실천 '전주시 기부천사' 한 자리에

'제1회 전주사람의 날' 행사 개최... 감사패 전달·챌린지 선포식 등 진행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기부천사들을 위한 특별한 전주시의 감사 '전주사람의 날'을 통해 전달됐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이병관)은 전주중부비전센터 1층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이병관 이사장, 기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주사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사람의 날'은 전주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온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날로, 참석한 기부자들에게는 재단에서 마련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쿠키와 함께 제공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진 전시와 포토존 운영 등을 통해 지니온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소액 정기후원 발굴을 위한 '더하기1 기부천사 챌린지' 선포식도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는 재단 설립 이후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9명에게 전주시장 표창과 전주시의장 표창,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표창장이 각각 수여됐다. 지난 1년간 재단 희망천사(고액후원자)가 돼준 8명에게는 전주시장 감사장과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



람'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4200여 명의 기부자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기부자들이 후원한 재원은 △전주형 SOS긴급지원사업 △전주형사랑나눔간병비지원사업 △복지공동체공모사업 등에 공적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은 "주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해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단은 기부자님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전주시민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는 '농소동 얼 굴 없는 천사'를 비롯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천사들이 많은 천사도시"며 "전주시도 기부천사들과 함께 모든 시민들이 일상에서 신바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수온·수질 최상' 전주 덕진수영장 재개장

덕진수영장이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론 모습에 시민 곁으로 돌아왔다. 지금껏 시설 개선공사로 40일 남짓 휴장한 전주 덕진수영장이 14일 다시 운영에 돌입한 것이다.

구대식 전주시설공단이사장은 "덕진수영장은 노후 지붕틀로 인한 부유물 낙하 위험 등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문을 닫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휴장기간 동안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3주 정도 단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들에

관한 개선 작업도 이번 휴장 기간을 통해 병행했으며, 출입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 로커 오류를 개선하고 기계실 수처리 자동제어반 교체로 수영장 수온과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덕진수영장은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출입구 경사로도 추가로 설치했다. 강을원 수영장운영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병무청,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재학연구자와 국외입영연구자를 대상으로 '2023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받을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 11시부터 24일 18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블록체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등)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 일자 및 복무기관을 2차까지 직접 선택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는 '지원희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선발 결과는 오는 28일 14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